

# 광주호 호수생태원 봄 새단장...“생태체험 오세요”

코로나 이전 수준 관광객 늘어  
팬지·붓꽃 등 34종 4만여본 식재  
데크 산책로·화장실 교체공사  
스텝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족 나들이 대표 명소로 자리잡은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봄맞이 새단장에 한창이다. 13일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심 관광지에서의 힐링을 원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봄 시즌을 맞아 봄의 색채로 시민을 맞이 위해 팬지 등 4종 8000본을 지난해에 이어 기본으로 식재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호수생태원 내 자연관찰원에 다채로운 색상의 붓꽃 등 34종 3만8000본을 심어 6월까지 무지개빛 물드는 초화원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도 마쳤다. 15년 이상된 노후 데크 산책로 2km는 방부 도색을 하고, 화장실 교체공사 실시설계도 마무리했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자연학습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호수생태원에서 놀자'를 비롯한 무등산 등산형 프로그램인 '지오레포트(GEO-REPORT)', 호수생태원 주요 9개 코스를 완주하면 물병 등 4종 기념품을 제공하는 '호수생태원 스텝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4주년을 기념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지질유산과 공룡 등 도안을 색칠하고 퀴즈를 푸는 '내가 그리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등 어린이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한다. 이미 올 들어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만 2025명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호수생태원 입구 에코센터 또는 무등산권지질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가족단위 나들이 명소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연계한 자연학습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자연학습 생태체험 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방부 처리와 도색을 마친 광주호 호수생태원 데크 산책로.

## 조깅하며 쓰레기 주워요 19일 광주천 '줍깅' 캠페인

세계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광주천에서 '줍깅' 캠페인을 실시한다. 15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빛고을하천네트워킹 주최로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참가하는 '광주천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 줍깅' 캠페인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의 합성어로, 일정 장소를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물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하고 선포한 '세계 물의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캠페인 구간은 치평교-영산강 합류지점으로 치평교에서 모여 19일 오전 9시~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구간은 광주시 아리랑물길 사업에서 지정된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으로 400여m 구간이다. 이구간은 억새 등이 식재돼 동·식물의 활동터전으로 이번 캠페인으로 구간의 확대의 필요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하천으로 들어가 하천 내부의 쓰레기 제거 활동도 병행한다는 게 환경단체 측의 설명이다. '줍깅'에는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8일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과 참여방법은 광주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동구 '백세친구 백년동아리' 개강 8개 분야 어르신 170명 참여

광주시 동구가 '2022년 백세친구 백년동아리' 참여자 모집을 마치고 동아리별 소규모 형태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세친구 백년동아리'는 지난해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 사회참여 및 자존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6개 분야 14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그라운드 골프 ▲걷기 ▲건강체조 ▲요가 ▲서예 ▲미술 ▲우쿨렐레 ▲뜨개질 등 8개 분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 170여 명이 신청했다. '백세친구 백년동아리'는 활동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활동이 가능한 동아리와 소규모 실내 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생활폐기물→순환자원 인정  
폐기물관리법 제약서 제외  
퇴비·건축자재 등 활용 쉬워져

커피 찌꺼기가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면제돼 허가 없이도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폐기물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돼 소각·매립 처리됐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2012년 9만 3397t → 2019년 14만 9038t 추정) 가까이 늘었고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커피찌꺼기 1t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때문에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진 조치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커피찌꺼기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점을 감안,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구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맹본부가 동일한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 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광주 북구 맞춤형 지원

광주시 북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 정책을 마련했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9세~24세 이하의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안정적인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50여명이 학업에 복귀했고, 95명이 사회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협업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교육참여수당 ▲성취포상제 ▲청소년 공모전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교육참여수당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증 프로그램을 1회만 이수해도 5만원을 지원한다. 성취수당은 개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청소년이 검정고시합격, 인터넷강의수강, 동아리활동, 직업체험, 자기계발프로그램 수료 등 성취도에 따라 10만원~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다양한 재능 개발을 위해 예술·공예 분야 공모전도 연 2회 개최한다. 문인 북구정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북구 특화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을 키우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h3>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h3> <p>기초반, 중급반</p>
<p>1 200평 (27) 2 300평 (40.8) 3 160평 (21.76) 4 161평 (21.5) 5 280평 (37.4) 6 150평 (20) 7 158평 (21.2) 8 150평 (20)</p> <p>110m (208평) 2 6m 도로</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gt; 9억</p> <p>급매가 -&gt; 6억</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반모집 -&gt;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li> <li>2) 전문반모집 -&gt;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li> <li>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gt; 평생 회원반</li> </ol>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구 행암동(임야) ▶ 감정가 97억 -&gt; 54억 (2/23)</li> <li>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gt; 3억 (2/23)</li> <li>북구 일곡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1천 -&gt; 4억8천 (2/23)</li> <li>북구 본촌동(근린시설) ▶ 감정가 15억 -&gt; 11억 (3/2)</li> <li>광산구 소촌동(농지) ▶ 감정가 4억4천 -&gt; 3억1천 (3/3)</li> <li>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gt; 1억7천 (3/4)</li> <li>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gt; 1억7천(3/15)</li> </ul>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32억 -&gt; 18억 (2/21)</li> <li>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gt; 11억 (2/28)</li> <li>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gt; 2억9천 (3/15)</li> <li>나주시 다도면(주택) ▶ 감정가 9억9천 -&gt; 5억5천 (3/15)</li> </ul>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 감정가 4억8천 -&gt; 8천 (2/15)</li> <li>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 감정가 17억 -&gt; 8억8천(3/2)</li> </ul>	
<h1>010-6670-9800</h1>		